

“ 우리도 사마귀 보러갈래? “

지금 생각해보면 최악의 고백이다. 하영이가 아름이하고 이어지고 나니 뭔가 조바심같은게 느껴졌다. 아마 초등학생쯤부터? 기나긴 짝사랑도 슬슬 막을 내릴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유독 그 애 앞에 서면 몸이 굳었다. 평소같으면 주먹질이라도 할 기세로 여자애들과도 투닥거렸는데 유독 지혜한테는 그게 잘 안됐다. 모든게 완벽해보였던 애였으니까.

하영이의 고백을 도와주기로 한것도 반쯤은 날 위한 일이었다. 내 주변이 변하면 나도 조금은 변하겠지 싶었으니까. 어릴때부터 나는 변화가 두려운 아이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교복을 입을때도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아마 어릴때의 트라우마 비슷한게 아닐까 싶다. 유치원생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조금씩 세상 물질 비스무리한걸 알게되는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문구점 아들이란 이유로 놀림을 받았었으니까. 촌스러운 시골구석의 문구점을 물려받긴 싫으면서도 막상 진로조사표 같은걸 받아서 내 스스로 뭘 하고 싶은지 답을 내려야 할때는 머릿속이 하얘지곤 했다. 진로조사표라는 글씨를 보자마자 내 것까지 아름이에게 넘겨줘 버린 것도 그런 이유였다. 난 이 학급과 친구들이 좋았다.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친구들과 서먹서먹해지느니 짝사랑에 가슴 졸이는 것이 나에겐 마음이 더 편했다. 그렇게나 변화가 두려우면 짝사랑도 시작하지 말걸 그랬느냐며 나를 책망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애가 좋아진걸 날 더러 어떡하라고. 짝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럼 나는 그 애와 같은 대학에 가려고 몰래 공부를 하는 것도, 등교하기전에 옆에 보이는 각도를 신경써서 빗질을 하는것도, 혹시나 체육시간 이후에 땀냄새라도 날까봐 운동장에서 등목을 했던것도 그만 두어야 하니까. 나에게 그럴 용기는 없었다.

하영이의 고백이 어찌됐던 성공은 하고, 아름이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용기가 생겼나 보다. 어른이 돼서 술에 취하면 그런 느낌이라나? 언제나처럼 체육수업을 울부짖으며 수영, 선우와 교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그러고보니 지금 교실이면 아무도 없겠지. 갈아입을 체육복을 안챙겨왔다며 대충 돌려대고 혹여나 그 애가 자리를 비울까 싶어 다급하게 교실로 뛰어왔다. 이름을 부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야!” 긴장한탓에 화내기라도 하듯이 언성이 커졌다. 전 수업 교과서를 정리하고 예쁘게 개워진 체육복을 챙기던 지혜는 물에 달은 고양이처럼 놀랐다. “어?! 왜?”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론 놀래킨게 미안하기도 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다. “크흠! 뭐 별 대단한건 아니고.. 이따 잠깐 볼래? 그.. 저기 뭐냐, 저기 저수지쪽에서.” 앤 내 고백 계획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 시덥잖은 소리를 진지하게도 한다는 투로 “그래, 이따 방과후에 보자” 하며 체육복을 마저챙겨 자릴 떠났다. 일은 저질렀다. 선우하고 같이 하영이를 그렇게 놀려댔으니 개들한테 어떡하면 좋냐고 물어볼 수도 없다. 그 날 체육시간에 했던 피구에선 유독 공을 많이 맞았다.

무슨 수업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나는 하루가 흘러갔다. 어떻게 해도 말은 상냥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나 먼저 간다, 거기서 오면 돼” 하고 뭔가 불만있는 녀석처럼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일은 벌렸는데, 마음의 준비는 한참이나 모자랐나보다. 눈치없이 날 찾아 해매는 선우를 따돌리느라 애를 좀 먹었다. 시간은 5시 반, 해질녘쯤이 돼서 노을이 저수지 위로 예쁘게 걸렸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운 머릿결을 살랑거리며 다가왔다. “야 강대상 나 이제 공부하러 가야되는데 왜, 무슨일인데.” 통명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다. 거사 직전에도 마음을 굳히지 못한 나는 “아잇 그런게 있어, 아무튼 저기 뭐냐, 그래. 너 양장피 먹어본적 있어? 저번에 선우네 아빠가 술취해서 기분 좋다고 만들어 주셨는데...” 로 시작한 쓸데없는 일장연설을 주구장창 늘어놓았다. 주홍빛의 햇살이 물 위로 길게 늘어져만 가고, 저녁빛과 낮빛이 오묘하게 섞여 신비로운 보랏빛 하늘이 펼쳐지던때, 지혜가 내 말을 끊었다. “야 강대상! 나 얼른 가야된다니까! 쓸데 없는 얘기는 쉬는 시간에 했어도 됐잖아!” 완벽을

추구하는 내 짝사랑이자 첫사랑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주지 않을 모양이었다. 나는 조금 주눅이 들어서 겨우겨우 입을 뗐다. “아니 그, 저 왜. 그 있잖아. 하영이랑 아름이 개네.. 그거.. 아무튼 그거..! 그래서 그, 우리도 저기 뭐냐... 그.. 우리도 사마귀나.. 보러갈..래..?” 그 말을 했으면 안됐었다. 그 말을 들은 지혜는 들어선 안될 말을 들었다는 듯 표정도 움직임도 모두 굳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었다. 햇빛이 사라지기 전, 그 찰나에 남겨진 빛줄기로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가고 있다는걸 알수 있었다. “야! 너..! 왜 울어...!!” 그리고 지혜는 가디건 소매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엉엉 울었다. 뭐라 뭐라 말은 계속해서 한것 같은데, 알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 또 다시 머릿속이 하얘졌다. 묘한 억울함도 있었다, 지금 울고 싶은건 난데. “너 따라오지 마!” 그 아이는 닭똥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소리지른 뒤 나에게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음부터 내 옆자리를 어떻게 쳐다보지..

그 일이 있는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떻게 지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학교에 와서 집에 갈때까지 그냥 멍하니 칠판 한 구석만 바라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착잡하고 뭐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좋아했던 선우네 집 짜장면도 먹고 싶지 않았고, 최가람이 사탕을 달라며 찾아와도 장난없이 굳이 곧대로 원하는걸 쥐어줬다. 권수영이 나에게 도발하듯이 장난을 걸어와도 딱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고, 혜선쌤이 집중하라며 머리를 때려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 즈음 권수영이 나에게 따쳐 물었다. “야 강대상 너 진짜 어디 아픈애마냥 왜그러는거여, 니 무슨일 있제. 답답해 죽어볼것은게 말이나 좀 해봐야 어?” 그래, 그래도 좀 털어놓고 나면 나아지려나 싶어서 수영이에게 그간 있던 일을 이실직고 했다. 수영이는 기가 차서 이야기했다 “와.. 너.. 와씨 영병 욱나오게 하네잉,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자빠진거냐? 어떻게된게 이 학교 머시마들은 제대로 된게 없다냐? 너 지혜 성격 몰라가지고 그 따위로 말한거여? 니네가 알고지낸게 초등학생때부터 몇년인디 니가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제” 그 이후로는 권수영이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 그냥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만 푹 떨어구고 맞아 맞아 되뇌이며 혼이 났다.

옆자리를 못쳐다보게 된지 2주일정도가 지났다. 때는 6교시 쉬는시간, 내게는 암시야가 돼있던 옆자리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쓰러질 뻔 했다. “야, 너 오늘 끝나고 그때 거기서 와.” 뭐라고 대답도 못한채로 수업종이 울리고 내 18년 인생중에 가장 긴 7교시가 시작됐다. 시계의 초침소리가 무슨 대포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시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걸까, 엉엉 울기까지 했으니 역시 날 싫어하는 거겠지. 모범생인 개가 나처럼 대강 대강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할리는 없었으니까. 학교 옆에 있는 그 저수지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고, 도축장에 끌려가기라도 하듯이 내 발걸음은 너무너무 무거웠다. 먼저 기다리고있던 지혜는 누가 들어도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가 아니고! 왜 그랬냐고!” “난 그냥.. 너가 좋아서.. 그랬어..” “그런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면 내가 좋다고 받아줄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쉽게 쉽게 꼬실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아니..” “그럼 뭔데? 왜 그런건데? 내가.. 내가..”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이 세상 모든 중력이 나에게만 향하는 듯한 중압감에 숙이고 있던 고개가 더더욱 무거웠다. 차마 그 애의 얼굴을 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어릴때부터 몰래 좋아했는데에.. 이런식으로 고백받기 싫었는데에..” 울음소리와 섞여 떨면서 말하는 그 아이의 말은 상상조차 해본적 없는 것이었다. 가디건 소매로 두 눈썹 꼭꼭 눌러 눈물을 닦고, 빨갛게 부어오른 눈으로 날 노려보며 이야기했다. “강대상 고개들어. 내 얼굴봐, 내가 한번만 더 기회줄테니까 진짜 멋있게 고백해.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하면 나 다시는 너 얼굴 안볼거야.” 이번엔 다른 의미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 그러면 지금? 애도 나를? 그럼 나 뭐라고 얘기해? 의문이 가득했는데도 어째서일까 입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 많이 모자라. 너한테 안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래도 허락만 해주면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죽을만큼 노력해볼게. 어릴때부터 좋아했어.

나랑 사귀어 줄래?” 미리 미리 책 좀 읽어놓을걸, 내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도 이것보다 멋진 말은 생각나질 않았다. “그래. 할수 있네. 음.. 10점만점에 6.5점이야.” 빨갈게 부은 눈의 그 아이가 남은 눈물을 떨치듯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게 뭐야... 그럼.. 나 손.. 잡아도 돼?” 그 말에 지혜는 다시금 배시시 웃으며 뒷짐을 지고 몸을 이리저리 배배 꼬다가 대답했다 “으음~~~ 안돼! 내 완벽한 계획으로는 첫 손잡기는 사귀고 난지 한 10일쯤 지나서 하룻길에 자연스럽게 손이 스치다가 잡는거란 말이야.” 하고는 꽤나 신난 총총걸음으로 먼저 발을 떼었다. 10걸음쯤 떨어졌을까, 지혜는 날 돌아보더니 “야! 바보남친아! 같이 안갈거야?” 하고 날 불러왔다. 다급히 뛰어가 그애 옆에 서서는 “그.. 진짜 손 잡으면 안돼?” 하고 물으면 “아 썸~! 그런거 일일이 물어보는거 아니야 대상아! ..... 잡던지” 하며 넌지시 손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지혜를 데려다주던 중

“너희도!?!?”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퇴근중이던 혜선쌤이 우리를 보고 소리치신 것이었다. 혜선쌤은 입을 채 다물지 못하고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 “지혜야 어쩌다 대상이랑...” 하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대충.. 그렇게 됐다..”

졸업식날 가진 술자리에서 선우와 이하영이 하도 집요하게 물어서 이 이야기를 안 꺼낼수가 없었다. 여태는 “아 그냥 그렇게 됐어” 하며 얼버무려 왔는데 오늘은 도저히 보내줄 생각이 없어보였다. 마침 타이밍 좋게 전화가 울린다. “여보세요? 어, 이제 곧 파할것 같아. 어, 아 그럼 그쪽으로 갈게.” 부러우니까 네가 계산하란 선우의 말에 어쩔수 없이 계산을 마치고, 약속한 저수지쪽으로 향하자 지혜가 잘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어땠어 처음 마셔본 술은?” “몰라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어서 얼마 안먹었어. 자기는?” “우린 술 안시켰어, 수영이 건강관리 때문에 음주 못하잖아.” “그랬어? 아쉬웠겠다 자기 술 마셔보고 싶다고 졸업식 이후에 어떤 가게 가볼지 계획도 다 세워놨었잖아” “아~ 그러니까~ 에휴.. 자기야, 우리끼리라도 한잔 할래?” 여자친구의 당돌한 물음에 난 거절할 수 없었다. 술은 비싸기만 하고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좋은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